



외국인 선원들이 출어에 앞서 그물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부적응·브로커 유혹에 야반도주 악순환

기 획 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4> 무단이탈 다른 시선

지속되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에 어민 시름

선주 “돈 더 준다는 브로커 유혹에 이탈 많아”

이주민 단체 “더 나은 처우·삶 찾는것일 수도”

#“그렇게 밤 중에 선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이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며 신규 선원 유입이 차단되자 외국인들이 미련없이 어촌을 떠나고 있다. 고된 작업 환경을 견디지 못해 떠나거나 임금이 높은 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고용주의 허락 없이 지정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는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을 어촌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선주 A씨(제주시 한림읍 한림항)는 “배를 20년 정도 타보니, 신규 선원이 하루 일하는 모습만 봐도 오늘 밤에 도망갈지 계속 일하려는지 알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탈자는 10% 이상으로 보인다. 이탈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행정력을 갖는 관리체계도 없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이탈 숫자는 기존에도 높았다. 제주에서도 매해 200~300명 가량의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업계에선 유자망 등 20t 이

하 작은 배에서의 선원 이탈률이 높다. 연근해 어업 외국인 어선원 수급은 어선 크기에 따라 나뉘는데, 20t 이하 작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를 통해 고용된다. 20t 이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외국인선원취업제도(E-10)로 입국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협과 계약을 맺은 송입·송출업체가 고용과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현장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두 분류의 차이점은 승선 경험의 유무다. 선원비자로 입국한 선원은 승선 경험은 물론 어선원 취업 관련 교육,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국한다. 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어선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외 어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

선주들은 선원 이탈에 따라 적정 어기 출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차기 어선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선주 B씨는 “(외국인들이) 배 타러 온다고 하면 빨리 입국할 수 있으니 일단 어업으로 들어오고, 이후 도망가거나 타 업체로 가겠다고 사인해 달라고 한다. 선주가 때리거나 괴롭혔다며

인권단체에 제보하는 경우도 많다”며 “피해를 본 어민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어디로 갔는지 위치 파악도 힘들 뿐더러, 어렵게 소재를 알게 돼도 복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t 미만 선박 어선원들이 이탈할 경우 정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원취업제도처럼 관리 업체를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떠날까?

지정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들이 택할 수 있는 행선지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도내 외국인 네트워크와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등록 신분인 외국인들이 첫 행선지는 같은 사업장, 선원의 경우 타 선박이다. 동료 외국인과 처우를 공유하거나 사설 인력 중개소 아래 소속돼 정해진 근무처 없이 일하는 방식도 흔하다. 이 경우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동원된다. 육지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어선원 이탈이 잦은 이유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입국 후 어업 현장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 탓이다. 또 너도나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높은 몸값을 부르는 곳에 가면 될 일을 굳이 고된 작업인 어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어서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경우 승선 근무를 위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채 입국하는데, 열악한 환경과 위험이 상존하는 거친 바다에서의 승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직 희망자의 대부분

은 임금이 높은 육상의 제조업 등으로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희망하는 업종 내 구직이 어려운 때가 많아 어업 분야에 구직 신청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했다.

2007년 어선원 비자(E-10)로 입국한 후 현재 도내 한 선박에서 근무 중인 C씨(30대·인도네시아)는 “어디서 일할 지 잘 모르고 입국했다가, 임금을 올려준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노출돼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탈한 이후 지정 직장이 없어져서 이도저도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탈이 잦아지자 비인권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010년 입국한 외국인선원 3명과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는 선주 D씨(서귀포시 모슬포)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일단 브로커들이 너무 많다는 점과 선주들의 태도 탓도 있다”며 “바다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폭언을 일삼거나 숙식을 엉망으로 제공하는 선주들도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도내 이주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가끔 사업주의 위법행위 등을 제보하러 우리에게 오거나 고용센터로 간다”며 “이탈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나쁘게 들리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삶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최근 일주일 코로나 확진자 1만명 훌쩍 하루평균 1580명대... 1주일새 갑절 가량 늘어

제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600명대에 달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 16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현재 15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선 2만32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93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에선 1만1105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주 대비 4356명이 증가한 수치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86명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 별 현황을 보면 10대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다. 10~19세(21.4%), 40~49세(15.2%), 20~29세(12.7%), 50~59세(12.2%), 30~39세(11.6%)·0~9세(11.6%), 60~69세(8.3%), 70~79세(4.0%), 80세 이상(3.0%) 등의 순이다.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9359명이며 이중 929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없으며 도내 위중증 환자 수는 1명, 치명률은 0.07%를 나타내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내년 하반기 제주바다에 핵오염수 온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어제 일본영사관 앞 회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26일 제주시 노형동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방류된 핵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당도하고, 중국 청화대의 예측에 400일이면 제주는 물론 한국 영해 전역에 핵오염수가 당도한다”며 “해양환경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 사진

제주행동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 주장하는 핵오염수 정화 시설의 효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검증된 바 없으며 정화 처리 뒤에도 치명적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등이 여전히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방류 결정으로 한국 인근 해는 물론 태평양 전체의 핵오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의무화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

앞으로 5인 미만의 농장이나 어선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내용

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도영기자

CW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제주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 2022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 훈련과정 + 훈련장려금

타일기능사 ※ 수료후 타일기능사 자격시험 응시비 지원

+ 훈련장려금 1일 16,000원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면제

+ 훈련기간 1일 6시간(20일), 9:00~16:00 1회차 8월29일~9월27일

+ 훈련기간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을 중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분 -건설현장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분 -건설 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분

훈련기관 문의 (주)제주직업전문학교 064)725-5546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 축 베 네 하우스

문의: ☎ 064-723-1105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THBA 청각보청기 대상 수상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충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